

한중Zine

최신 중국 동향

vol.154 2015.04.03

일대일로, 창장경제벨트, 징진지 지역 정책동향

작 성 | 인천발전연구원
유다형 연구원 (yoodh@idi.re.kr)

목 차

1. [지역] 쓰촨 일대일로 3년 행동계획 발표
2. [지역] 창장경제벨트 지역 연계 발전 현황
3. [지역] 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현황
4. [지역] 징진지 통관일체화

지역 ▶ 쓰촨 일대일로 3년 행동계획 발표

- 쓰촨성은 2015년 3월 22일 일대일로(一帶一路)관련 성 정부차원의 정책을 발표
 - 쓰촨성은 “일대일로”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대외경제무역협력의 중심지임

그림 1 | 일대일로 관련 쓰촨의 지리적 위치와 역할



출처: http://theory.gmw.cn/2015-03/25/content_15204989.htm

- 쓰촨성은 일대일로 ‘251’ 3년 행동계획(一帶一路‘251’三年行动计划)을 통해 구체적 지원정책을 발표함
- 쓰촨 성정부는 지역의 기계가공, 전자정보, 의류방직, 건설원자재, 농기계, 현대농업 등의 산업 발전 장점에 기초하여 관련기업의 대외 투자 협력을 적극 장려할 계획임
 - 현재 쓰촨성은 시멘트, 방직, 전력, 철강, 건설원자재 등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점을 안고 있음
 - 쓰촨성은 20개 국가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육

성할 계획

- 현재 쓰촨성에는 1만 개에 달하는 외국계 무역기업이 상주하고 있으며, 이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일대일로 무역투자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임
- 3년 내 쓰촨성과 일대일로 유관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를 현재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확대하고, 투자는 현재 13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함
-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제도화하고, 외상투자민원처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하는 등 외상투자관리체제를 강화
 - ‘외상투자 100대기업’을 선정, 《외상투자기업발전보고》를 통해 발표하고 외국자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임
- 국가급 중국-프랑스 청두(成都)생태원, 중국-독일 산업원, 중국-한국 산업원 등 친환경 경제개발구의 대외협력단지 건설 추진을 통해 경제개발구 발전 도모
- 해외자본 유치 방식의 전환
 - 쓰촨성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서 전문화·시장화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임
 - 외자 위안화 직접투자, 외자주식출자, 기업해의 상장 및 역투자, 외자참여의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
- 해외시장 개척으로 생산과잉 문제 해소 기대, 해외기업과 첨단기술 협력이나 R&D 센터 건설, 브랜드 인수를 통해 산업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마련 기대

■ 창장경제벨트 지역 간 불균형 현황

- 창장경제벨트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삼각주에서 서쪽으로 창장유역을 따라 지역들 간 경제발전 수준의 명확한 차이를 보임
- 창장상류는 윈난, 구이저우, 쓰촨, 충칭으로 전국에서 산업발전이 더딘 곳으로 동부지역으로부터 산업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
 - 한편 창장상류는 생태보호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이뤄지고 있어, 발전과 보호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
- 창장중류 지역은 후베이, 후난, 안후이, 장시와 같은 내륙형 경제로 유사한 발전 수준을 보임
 - 하지만 각 도시군의 지방정부간 육성산업 정책과 외자유치 정책이 중복되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
- 창장하류 지역은 장쑤, 저장, 상하이로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, 서비스업과 금융이 집중되어 있음
 - 그러나 창장경제벨트의 타 지역과의 협력 부족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경제벨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

■ 도시군 연계 방안 제기

- 창장경제벨트는 창장삼각주도시군, 창장중역도시군, 청위도시군, 첸중도시군, 텐중도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, 도시군간 교통망 강화 등 연계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

- 중국 국무원이 2014년 9월 발표한 《국무원의 황금수로를 활용한 창장경제벨트 발전추진을 위한 지도 의견》에서도 5개 도시군 발전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
 - 창장삼각주도시군의 국제경쟁력 제고
 - 상하이의 금융, 해운, 무역센터 건설과 난징, 항저우, 허페이의 국제화 수준 향상
 - 창장중역도시군의 발전 도모
 - 우한, 창사, 난창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, 도시간 산업 내분업과 협력으로 중부굴기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
 - 청위도시군의 일체화 추진
 - 충칭과 청두를 중심으로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고, 창장상류의 개방지이자 내륙의 개발시험구로 발전
 - 첸중, 텐중도시군의 발전 제고
 - 쑤이(遵义)-구이양(贵阳)-안순(安顺)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가공, 특색있는 경공업, 민족문화의 문화관광지로 개발
 - 쿤밍은 동남아와 남아시아개방의 중심도시 기능 강화

그림2 | 창장경제벨트 내 도시군 위치



출처: http://theory.gmw.cn/2015-03/25/content_15204989.htm

■ 중국 초광역수도권(징진지) 일체화 가속화

- 2014년 출판된 『징진지(京津冀·베이징, 톈진, 허베이)의 약칭) 보고서』에서는 베이징-톈진-허베이 일체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
 - 수도권을 묶는 940km의 외곽순환도로가 2015년 완공 예정
 - 특히, 허베이성 바오딩(保定)시로 수도 행정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임

그림3 | 징진지 도시군 및 위치



출처: <http://finance.sina.com.cn/zt/china/20140321/083218573379.shtml> 그림수정

- “징진지도시군발전개혁위원회”를 구성해 지역 간 교통체계, 생태환

경, 시장체계, 사회보장제도 통일을 주요 업무로 하며, 부처 간 정책 협조, 갈등중재를 하게 될 것임

- 징진지 구역 내 생산투자, 산업이전, 과학기술단지, 외부기업과 외자 유치 등에서 오는 이익과 접경지역 산업의 세수를 공유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
- 국가개발은행과 같은 방식의 수도경제권발전은행 설립
- 보고서에서는 수도공공서비스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교육 발전, 원거리 의료 등에 투자하여, 주변지역의 공공서비스수준을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함
- 그 외에도 도시군 내 인구서비스 연결을 위해 새로운 호적제도,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, 지역합작 방식을 마련하고, “너 안의 나, 내 안의 너(你中有我, 我中有你)”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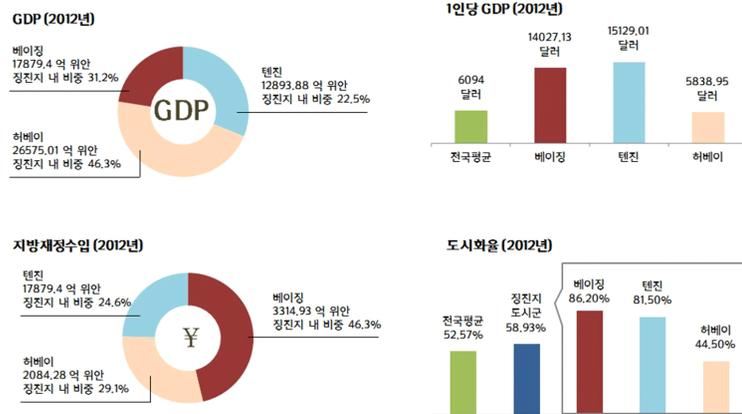
■ 징진지 도시군 현황과 과제

- 『징진지보고서』에 따르면 베이징과 톈진의 종합경쟁력은 매우 높은 반면 허베이 1인당 GDP는 두 지역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, 전국 평균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시화 중간단계에 머무
- 지역 내 경제발전 불균형으로 중소형도시에서 베이징과 톈진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을 보임
-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이며, 톈진은 약 60만 명에 달하고, 점차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
 - 2010년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인구는 155.9만 명으로 베이징에 상주하는 외지인구의 22.1%를 차

지함

- 텐진의 경우 허베이에서 유입된 인구는 75.45만 명으로 텐진 상주
외지인구의 25.2%를 차지함

그림4 | 징진지 경제현황



출처: <http://www.chinanews.com/gn/2014/03-26/5992942.shtml> 그림수정

- 이러한 노동인구 유출은 허베이성의 도시화 발전 속도, 규모,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, 동시에 베이징과 텐진과 같은 대도시들에게는 운영과 관리에 큰 부담이 됨
- 베이징시 중심에는 기업과 여가, 유통이 모두 밀집해 있으며, 베이징 중심지의 인구밀집은 최근 10년 동안 점차 심각해짐
 - 인구 분산을 위해 왕징(望京)신도시, 후이룽관(回龙观) 신도시 등을 건설해 주거 인구를 외곽으로 이동시켰지만, 기업, 여가, 쇼 핑센터가 중심지역에 몰려있음
 - 출퇴근시간마다 벌어지는 교통 혼잡은 산업이전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
- 보고서에서는 베이징, 텐진, 허베이 공동참여의 신도시 및 개발단지 모델 제안

- 베이징 신공항 건설을 징진지의 국가급 경제구역합작시범구로 공동 신청
- 텐진의 투자와 무역 편의를 위한 종합개혁신구를 베이징, 허베이가 공동 참여할 것을 제의함
- 징진지의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단지노선을 “중관촌(中关村:베이징)-이장(亦庄:베이징)-랑팡(廊坊:허베이)-우칭(武清:텐진)-베이천(北辰:텐진)-동리(东丽:텐진)-빈하이신구(滨海新区:텐진)”로 연결하여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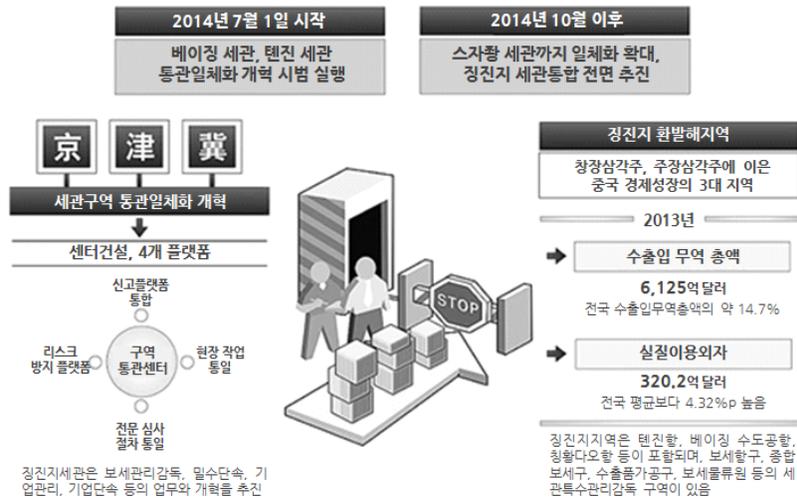
04

지역 ▶ 징진지 통관일체화

- 2015년 3월 20일 베이징시 상무공작회의 베이징항구통계에 따르면 징진지 지역의 통관일체화 이후 무역의 편리성 제고로 인해 2014년 베이징세관검사 화물총량이 2,101.7톤으로 363.1%증가했다고 밝힘
- 2014년 7월 1일 베이징과 텐진이 시범적으로 통관일체화 개혁을 실행했으며, 9월 22일은 스자좡세관으로 범위를 확대함
 - 징진지지역의 통관일체화로 세 지역의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함
- 베이징의 경우, 베이징시 기업이 징진지세관을 통해 세관 신고한 수출입화물은 총 1,287.75억 달러로 전년대비 8.5%증가했으며, 베이징 전체의 31%에 달함
 - 통관일체화 개혁 이후, 외국계기업은 세 지역 중 편리한 세관으로 선택할 수 있어 통관효율이 매우 높아짐
- 베이징시 상무위원회의 조사 결과, 기업들의 통관시간은 평균 20~30% 가량 절약되며,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나타남
 - 베이징기업은 텐진항을 통해 수출입을 하고, 도착 당일 운송을 할 수 있어 전보다 통관비용이 1/3가량 절감됨

- 징진지지역의 해외무역 협력을 더욱 강화해, 징진지 세 지역의 발전 협력시스템을 건설할 계획
 - 베이징 텐란(天竺)종합보세구, 베이징 이창(亦庄)보세물류센터와 허베이성 차오페이텐(曹妃甸) 종합보세구의 협력모델을 창출해 두 지역의 보세구 연계
 - 베이징-텐진, 베이징-허베이 및 인접지역과의 협력으로 통관효율 제고
 - 텐진 자유무역구정책, 등장(东疆)보세항구의 정책을 베이징에 적용

그림5 | 《징진지세관구역통관일체화개혁방안》 주요 내용



출처: <http://www.hoyimedia.com/content.aspx?id=1914>,
<http://blog.naver.com/otterkang?Redirect=Log&logNo=220024603742>

참고자료

1. 四川出台专项政策推动实施一带一路三年行动计划, 四川省人民政府网站, 2015-03-22
2. 关于长江经济带你要知道的十件事, 人民论坛网, 2015-03-25
3. 京津冀蓝皮书: 省际产业转移可税收分享, 新京报, 2014-03-26
4. 京津冀外贸一体化 北京口岸进出口增三倍, 新华社, 2015-03-20